

# 결핵 만큼 심각한 입소자들의 치아 문제



## 달라진 입소자들

결핵은 노숙인생의 막장에서 어김없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병입니다.

지금은 사정이 나아졌지만 몇 십 년 전만 해도 결핵은 불치의 병이자 황천길을 건너는 죽음의 교차로였습니다. 결핵환자는 폐병쟁이로 불렸고, 모두가 접촉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결핵환자는 결핵에 따른 신체적 고통에 한 번, 자신을 멀리하는 주변의 시선에 두 번 읍니다.



- 1 미소꿈터 옥상 한 켠에는  
입소자들이 가꾼 화분이 늘어서 있다.  
2 미소꿈터 입구



오복 중의 하나로 건강의  
가장 기본인 치아가 온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씹고 뜯고 즐기고  
느끼는 음식 맛을 이분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씹지를 못하니 음식은 끼니를 때우기  
위한 방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숙인은 일정한 주거와 생계 없이 거리를 배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 없어서, 인생의 막장을 살고 있는 그들이 결핵이란 병을 만난 겁니다. 치료해야 할 의지도, 이유도, 희망도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 회에서 소개했듯, 지난해 10월 결핵노숙인을 위한 사회복지생활시설 '미소꿈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결핵에 걸린 노숙인들이 시설에 입소해 3개월 여, 이들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복약치료, 영양을 통해 삶의 기운을 재충전하고 건강과 자신감을 회복해가는 것 같습니다.

### 결핵보다 심각한 치아상태

처음 입소자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얘기 나누고 치료하는 동안 이분들의 건강이 매우 심각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치아상태였는데, 치아가 거의 망가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오복 중의 하나로 건강의 가장 기본인 치아가 온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씹고 뜯고 즐기고 느끼는 음식 맛을 이분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씹지를 못하니 음식은 끼니를 때우기 위한 방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씹지 못하고 넘겨버린 음식이 위에 부담을 주면서 순차적으로 몸 전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가 없어 잇몸으로 씹으려니 입술을 깨물어 터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윗니 아랫니가 맞물려야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있는데 텅 빈 어금니의 아귀가 맞지 않으니 옆니에 기대게 되고 얼굴 전체의 윤곽이 틀어졌습니다. 앞니가 빠지면 남 앞에 나서기가 부담스럽고 드러내놓고 웃을 수도 없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마음까지 감추게 돼 자신감도 없어졌습니다. 남 앞에 서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제대로 된 직장은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민간 치과병원에서 치과치료를  
 시작하면서 병원동행을 자청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입소자분들의 치아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었고 이분들과 관계를  
 친밀하게 맺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에게 치아치료는 결핵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핵은 약으로 치료한다지만, 부러지고 썩은 치아는 당장 식사와 관련돼 더욱 시급해 보였습니다.

치아 치료가 급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고가의 치료비를 감당할 엄두가 안 나 방치하며 살아왔던 이들입니다. 마치 노숙생활의 천형처럼 감내하며 말이지요.

### 치과 치료, 현실이 되다!

미소꿈터에서는 치아치료와 관리의 절대적 중요성에 주목하고 입소자분들의 치아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서둘러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민간의원의 문을 두드렸고 공공의료기관 관계자들도 만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네트워크가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다시서기의원 최영아 원장님이 민간의료단체인 치과 의료선교회를 소개했고, 공공의료단체 회의에 참석해 공공병원에서 틀니를 포함한 치과치료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아상태가 심각한 입소자분들의 퇴소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치과의료선교회 담당자와의 통화, 진료일정 잡기와 진료진행, 공공병원 치과 선생님과 진료예약 및 직접 방문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3

3 미소꿈터 내에는 책도 읽고 컴퓨터도 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다.

4 이 일대에서 가장 예쁜 건물이라고 할 정도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미소꿈터 외관



민간 치과병원에서 치과치료를 시작하면서 병원 동행을 자청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입소자분들의 치아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었고 이분들과 관계를 친밀하게 맺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회가 많지 않은 사무국장의 직분에서 이분들과 관계를 친밀하게 맺는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덤으로 마치 야유회에 나온 듯 주변 볼거리를 둘러보며 바람도 쐬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시원한 봄바람을 맞으며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분들의 삶에서 긍정적인 추억과 경험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 일상에 적응해가는 입소자들

입소자들의 치과치료에 동행하면서 “병원에 들어가면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쌤에게 반갑게 인사하세요”하고 언질을 주곤 하지만, 보통 조용히 들어갔다 조용히 나오십니다. 이분들은 감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사를 받으려 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치아를 치료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말 한 마디쯤은 하기를 기대하는데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치과라는 공간이 낯설고 어색해서일 것입니다. 병원뿐 아니라 교통편을 이용해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 약국에서 약을 타는 일 등이 모두 어렵습니다. 치료내용을 알려줘도 잘 기억하지 못하며 치료 일정을 협의하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랜 노숙생활로 인한 무기력함은 일상생활을 앓아갔습니다.

하지만 몇 년, 아니 몇 십 년을 미뤄왔던 치아치료를 할 수 있게 된 데 대한 기쁨 때문인지, 마취주사가 잇몸을 찔러도, 기계로 이를 갈고 치석을 제거해도, 썩은 이를 뽑아도 치료하는 동안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꼭 참고 치료를 받는 순박한 분들입니다.

치료가 끝나고 빠진 어금니 사이로 한 움큼 숨을 문 얼굴로 씨~익 웃음을 지으며 애써 고통을 숨기려 합니다.

이분들과 외출을 다녀온 날은 여행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기분이 상쾌해지고 힘이 납니다. 통증을 수반하는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 것처럼 퇴소 후 펼쳐질 고비들을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분의 마음속에 조금 더 자리를 차지했기를, 그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졌기를 기대해 봅니다.†

